

# 제조업 경쟁력 복원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부활과 산업 생태계의 구성

김준철 전무 소비재, 유통 및 제조부문 리더



‘우리가 너무 경기 비관론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2016년 반기보고서 공시일 이후 한 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이다. 그 옆에는 한국 기업이 위기에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같이 실려 있다. 하지만 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는 시각에서 보면 기사의 내용이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 최소한 경기가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과거 몇 년 동안 제기된 한국 경제의 문제는 깊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과거의 추진력을 상실하고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원인으로 인구구조 등 경제 외적인 요인이 언급되기도 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세계 경제의 불황이 얘기되기도 했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2011년 1분기 81.3%에서 2016년 1분기 73.6%로 하락 추세를 지속해 왔고, 상장기업의 매출증가율도 하락했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증가율은 2000~2008년은 연평균 12.6%를 기록했으나, 2011~2015년에는 6.2%로 하락했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이 4.8%에서 3.0%로 떨어졌고, 수출증가율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출 탄성치도 2.6에서 2.1로 하락했다.<sup>1</sup> 상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2015년 한국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주요 수출상대국의 수입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다.<sup>2</sup>

소위 고부가가치 산업 상황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부가 제조업의 추이와 수출경쟁력 국제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2010~2014년 첨단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첨단 제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15.3% 커졌고, 독일(5.7%)과 대만(4.5%), 영국(2.1%),

미국(1.9%)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성장했다. 장기화된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은 우리에게 내줬던 시장점유율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우리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조선,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나 반도체산업에서도 거세게 추격을 하고 있어, 과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할 때 쓰이던 ‘샌드위치’론은 ‘신샌드위치’론으로 부활했다. “우리 경제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소비-투자 등 내수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금융권 보신주의, 산업현장 수요와 괴리된 교육 시스템 등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 활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sup>3</sup>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쟁력 및 산업구조에 대한 우려가 과거 10여 년간 계속 이야기되어 왔음<sup>4</sup>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해법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 듯하다. 가능한 여러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국가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견인해 왔다. 산업 집중도는 심화되었고, 50%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 하청관계에 놓여 있는 하청 산업구조는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시켜 놓았다. 중소기업인의 46.7%가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대기업의 하청업체’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을 ‘대기업 종속’으로 꼽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총생산액 대비 업종별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주력 제조업 수는 1981~1985년 1개에서 2011~2014년 5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5개 산업(ICT, 자동차,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이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로 1981~1985년 당시 상위 5개 산업의

비중 43.4%에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주요 7개국(G7)의 대부분은 제조업 총생산액 대비 업종 비중이 10%를 넘는 주력 제조업의 범위는 축소 혹은 유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5</sup>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30%를 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 기준으로는 17.1%, 기업 수는 약 9만 개에 불과해 대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참여율이 독일의 10%, 미국의 6%에 비해 월등히 낮은 2.7%라는 것도 이리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듯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상생협력관계라기 보다는 갑을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세계 30위로 미국의 48% 수준에 불과한데<sup>6</sup>,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생산성은 1988년 53.8%에서 2014년 30.5%로 하락했으며<sup>7</sup>,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전(全)

산업에서 대기업 대비 2009년 61.4%에서 2015년 60.6%로 격차가 커졌다.<sup>8</sup>

### 제조업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충격이 있을 때마다 국내에선 성장 구조를 '제조업·수출'에서 '서비스업·내수'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서비스산업발전 육성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서비스업 육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제 시스템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sup>9</sup>,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품목이 제조업 위주인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부흥은 경제 부활에 필수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수출을 배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제조업의 미국 유턴을 가속화하고 있다. 보잉은 주력 항공기 777X를 워싱턴 주에서 생산기로 결정했고,



월마트는 10년간 자국 상품 5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했다. 탈산업화의 추세 속에서도 높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많은 곳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부활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제고와 이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의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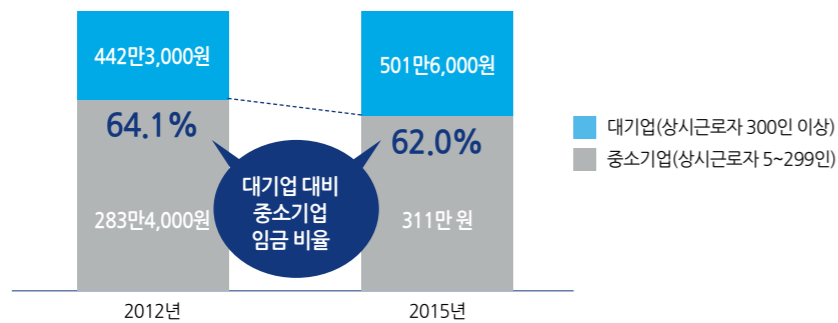
### 기업가정신의 부활

수년 전 기업을 잘 키운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회사 성장에 모 대기업이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온 답이 의미심장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려다 보니 단가 등 거래 조건을 너무 심하게 요구해서 찾김에 노력하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굴지의 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품질과 마케팅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미래가 한정된 대기업 납품업체의 길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해외시장 개척을 놓고 고민했을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결심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도 더 훌륭한 기업이 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볼 때, 이런 도전 정신이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일부가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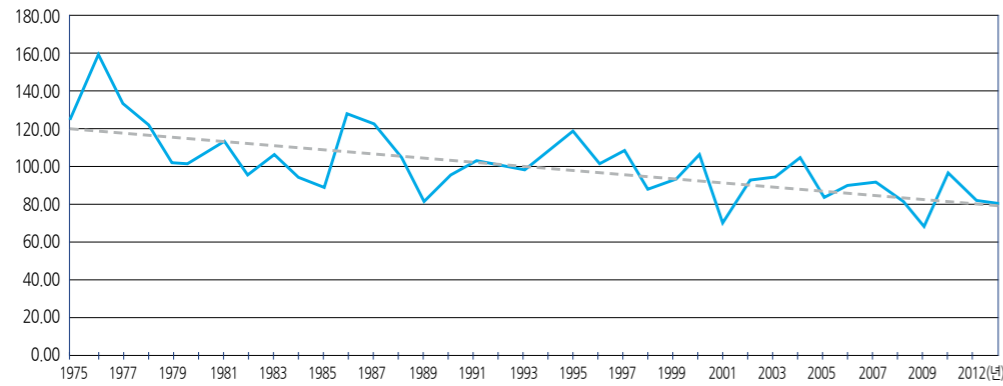
2014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0개국 중 32위를 기록해 상위 27%에 해당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세부 지표 15개를 분석한 결과 △창업 기회 인식 △혁신을 통한 시장지배력·경쟁 환경 구축 △기업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지지도 △혁신형 창업 기회 △기업·시장의 세계화 지표가 특히 취약했다. 다른 관점에서 측정한 그림 2를 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970~1980년대에 비해

그림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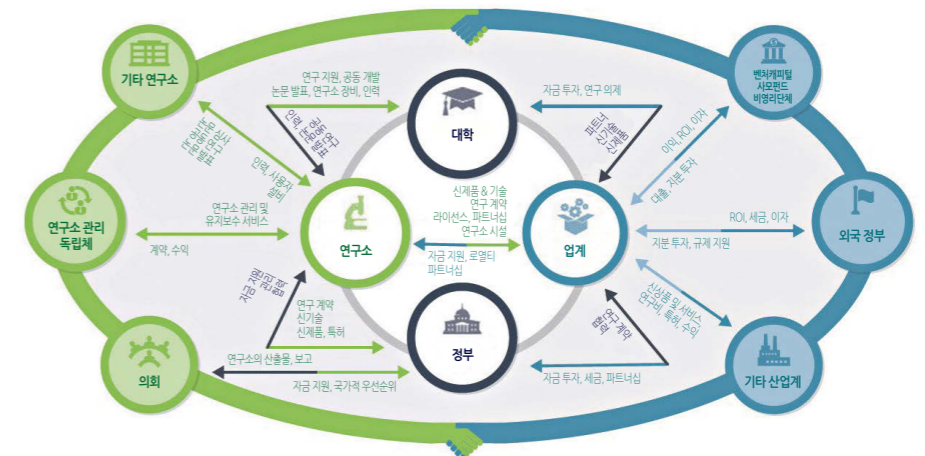
출처: 경향신문, 2016.3.2.

그림 2. 한국의 기업가정신 변화 추이(1975~2013년)



출처: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KREI정책제언 15-26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그림 3. 현재 미국 혁신생태계의 모습  
역사적 유산과 새로운 시장 역동성이 함께 만든 산출물



출처: Advanced Technologies Initiative-Manufacturing & Innovation, Deloitte &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5)

지금의 기업가정신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제고가 중요한 때다.

**대기업·강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54만2,35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종사자 수는 1,402만7,636명으로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2012년 전 세계 2,734개 강소기업 중 1,307개가 독일 중견기업(미텔슈탄트)이다. 연필 제조회사 파버카스텔, 칼 생산업체 헥켈 등은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의 상징이다. 일본의 경우도 극심한 경제침체에 중소기업들이 산업, 특히 부품산업을 위주로 경제를 받치고 있었다.

일본 역시 우리처럼 하청이 발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적자를 해마다 기록하면서도 한국에 위치한 제조기업과의 납품계약 구조와 단가를 계약 기간 동안 철저히 지킨 일본 대기업의 모습을 본 필자로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대다수의 하청업체들인 중소기업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부품의 기술 발전과 동향 파악은 해당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높은 품질의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낸 중소기업이, 몇 년이 지난 후 단가 인하 요구에 힘들어하고 직원의 과반 이상을 장년층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며 소유주는 회사를 처분할 생각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대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협력하고, 내외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내려는 동기가 매우 크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보유한 핵심 기술이 충분하지 못하고 정보 활용도도 낮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연관 활동을 지원하며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딜로이트에서 2015년 발간한 'Advanced Technology Initiative-Manufacturing and Innovation'에 나와 있는 미국의 혁신생태계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계의 구조를 검토하고 빈 곳을 채워 나가는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생을 위한 생태계 이미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보다 기업들 간의 관계와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축을 옮기면 어떨까 싶다.

- 1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Global Strategy Report 16-005, 코트라, 2016.6.
- 2 OECD한국경제보고서, OECD, 2016.5.
- 3 주형환 기획재정부1차관, 한국경영학회 신년감사 및 창발경영출판기념회, 머니투데이, 2015.1.14.
- 4 예를 들어,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중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추격에 직면해 제조업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 5 'G7 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경제주평16-21(통권694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5.27.
- 6 컨퍼런스 보드, 2014
- 7 OECD한국경제보고서, OECD, 2016.5.
- 8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49.7이다.
- 9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주평 13-37(통권 554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8.30.



Contact  
김준철 전무  
소비재, 유통 및 제조부문 리더  
02-6676-3170  
junckim@deloitte.com